



'출연(연) 노하우 전수의 요람될 것'

석·박사과정 115명 vs 교수 3,600명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정 명 세 박사

Science People

정리 - 정진의 본지편집위원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11월 초 정부의 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 총장도 선출됐으며, 사무실도 KIST에 자리를 잡았다. 초대 총장으로 뽑힌 정명세 총장은 학생의 질적 측면에서 일류 대학으로 키우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연합대학원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입학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자질이 떨어지는 학생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최정에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어느 기업, 어느 연구현장에서도 환영받을 것 아닙니까.”

정명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 현장에서 직접 교육함으로써 실무 적응 교육이 필요없는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의식 교육과 일반 공통 과목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주변 일반 대학과 학점 인정제 협정을 맺어 채운다는 것이 정 총장의 구상이다. 연구 현장이 곧 강의실이고, 캠퍼스가 따로 없이 22개 이공

계 정부 출연연구소가 곧 캠퍼스인 특수한 대학인 만큼 내실 위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생휴전 49개 전공 개설, 내년 3월 개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원은 석사과정 45명, 박사과정 70명 등 총 115명. 교수진은 22개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3천600여 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맡는다. 첫해에는 신생융합기술 위주로 49개의 전공이 개설된다.

정 총장은 매년 세계적인 기술흐름에 맞춰 전공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진이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은 일반 어느 대학이 흉내내기 힘들 것입니다. 일본의 총합연구대학원대학도 이런 방법으로 대학원을 설립해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교수진과 학생이 1대 1인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이갈

은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국내외 프로젝트에 교수진과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고, 해외 연구현장에도 우선 파견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 총장의 생각이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실무 교육이 몸에 배게 된다. 일반 대학원의 경우 교수 한 사람당 10여 명씩의 학생이 딸려 있어 이같은 교육이 어려운 형편이다.

“연합대학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가 쉽게 하고, 연구원들에게는 교수직이라는 직업을 하나 더 갖게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단순히 인력 양성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만성적인 연구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대학은 많은 대학원생들을 연구원으로 쓸 수 있지만, 연구기관은 인력 보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연구센터의 경우 막내 연구원이 40대인 곳도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그런 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기폭제 역할도 할 가능성이 크다.

22개 정부 출연(연) 모두가 캠퍼스

정 총장은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등산으로 건강을 다진다. 동행은 주로 ‘집사람’. 대전에서 가깝고 분위기 좋은 속리산을 즐겨 가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는 우성이산도 즐겨 찾는 곳이다. 산이라기보다는 뒷동산이지만 올라가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려 건강을 챙기기에는 안성맞춤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시절에는 1년에 한두번씩 직원들과 함께 산으로 극기 훈련을 가기도 했다. 정 총장은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 못지않게 활동적이다.

그는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우리 나라의 표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 놓은 것을 꼽았다.

“1970년대 한국표준연구소가 창립될 때는 표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표준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인데도 그 중요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창립 초기 몇 개월 동안 표준연구소 연구원들이 전국을 돌며 표준에 대해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 표준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든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측정표준과 분석 표준은 280여 개가 되지만 우리 나라가 확립하고 있는 것은 150개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정 총장의 말이다.

저울을 예를 들어 보자. 저울의 정확도를 한국표준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정확도가 떨어지면 외국에 수출하기도 어려워진다. 시간, 길이 등 수많은 표준이 산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이다.

측정 관계 표준을 다루는 국제 조직으로 국제도량형총회가 있다. 여기에는 현재 51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도량형 위원회 위원 18명이다. 이는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는 데 우리 나라에서는 정 총장이 1996년에 뽑혔다. 평생직이기도 하며 동일 국가에서 두 사람을 선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표준 관련 그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으면 위원으로 뽑아주지 않습니다. 하는 일은 표준과는 거리가 먼 대학 총장이 됐지만 그 자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그 몫이 돌아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 총장은 자녀 둘이 모두 이공계 출신이다. 과학자들이 자녀를 이공계에 보내기 싫어한다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큰 아들은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포항

공대 전자과 석사를 마쳤다. 얼마 전 반도체회사에서 5년간의 병역특례를 끝냈다. 둘째 아들은 연세대에서 금속학 박사학위를 딴 뒤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다.

“두 아들이 인문계를 졸업한 고교 동창들에 비해 하는 일이 고달프다는 투정을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해 하고 있다”는 것이 정 총장의 말이다. 정 총장은 이공계 출신들은 일부 잘나가는 인문계 출신처럼 떼부자나 벼락 출세를 하는 비율은 적지만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면 매력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무조건 이공계를 기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총장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총장에 선출된 것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과학기술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과학기술 명문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 공직 ... 과학기술명문 만들터’

“이 총장자리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61세이므로 연임을 위해서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대학의 모습을 ‘조각’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대학이 발전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마지막 공직이 될지 모를 총장직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게 합니다.”

정 총장은 1994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맡은 이래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을 정부기관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있었다. 총장 직전에는 기초 분야를 연구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기초기술이사회 이사장이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후보로 나서려면 65세 이전에 총장 임기가 끝나야 하는 나이 제한이 있다. 정 총장이 연임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다.

“연합대학원의 성패는 주인에 해당하는 정부 출연(연)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제각각 자기 주장을 하고, 이해를 앞세우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연(연)들이 그동안 연합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만큼 협조가 잘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정 총장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시절 대덕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장을 맡았었다. 여러 기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애로 사항을 타개하는 데 앞장선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연합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각기관의 협조를 얻는데는 정 총장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부출연연구계의 반응이다.

“과학계는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사물을 볼 때 틀리거나 맞거나 둘 중의 하나로 분석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이를 의견이 많은 다른 집단이 보면 의사 수용폭이 좁은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자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만 봐주면 좋겠다.”

과학계가 사분오열하고, 투서 등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정 총장의 말이다. 정 총장은 그 누구보다 과학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정 총장은 1978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해 이 곳 원장,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장,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평남 강서 출신으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테네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㉔